

인물

위기를 딛고 도약을 준비하는 쇼트트랙 기대주

쇼트트랙 세계대회 종합우승
이문현(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

김유림 객원기자 csyong1617@naver.com

오로지 ‘재미’ 하나로 스케이트를 타게 된 어린 소년이 있었다. 물론 부상으로 인한 큰 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간절함 하나로 위기를 이겨내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국제대회에서도 당당하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제 우리학교 새내기로 입학하게 되는 갓 스무 살의 이문현(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를 만나 새내기로서의 목표와 입학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유치원 특성상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었던 이 군은 유독 스케이트에 재미를 느꼈다. 글자를 떼기도 바빴던 어린 소년은 ‘재미있다’는 이유 하나로 스케이트에 몰두하게 됐다. 스케이트에 빠르게 적응한 소년은 신동 소리를 들을 정도로 스케이트에 능숙했다.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이자 이 군의 스승인 제갈성렬 전 춘천시청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은 “문현이는 순발력이 좋아 쇼트트랙계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선수”라고 평가했다.

현재 이 군은 쇼트트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망주지만, 그의 선수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중학생이던 시절, 이른 나이에 위기가 찾아왔다. 대학생들과 같이 훈련을 하던 도중 발목뼈가 모두 으스러지는 큰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의사는 앞으로 운동을

못할 수 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전했다. 스케이트를 신을 수 없던 것으로도 모자라 옆친 데 댔친 격으로 그 당시 이 군의 어머니도 건강이 악화됐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때 쇼트트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세웠다.

“큰 부상이라 운동을 다시하기 힘든 상태였다. 하지만 쇼트트랙을 계속하고 싶다는 간절함과, 아프신 어머니를 보며 쇼트트랙으로 효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재할에 몰두했다.”

이런 생각 하나로 그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재활치료를 받았고, 결국 스케이트장으로 돌아왔다. 위기에 굴하지 않고 기회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3년 만에 되돌아간 링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다른 선수에 비해 기량이 많이 뒤쳐져버린 그는 쇼트트랙으로 끝장을 보자는 생각 하나로 부단히 몸을 끌어올렸다.

부상경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절실함과 노력은 빛을 발했다. 과천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이 군은 초·중·고를 함께 나온 선배 이효빈(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와 함께 터키 에르주름에서 열린 ‘2014 쇼트트랙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이하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국제대회가 처음이라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승승장구했다. 처음 마주하는 외국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수한 상황 판단력으로 밀리지 않았다. 이문현 선수의 주종목인 1000m와 1500m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000m, 1500m



김유림 객원기자

고양 어울림누리 체육관에서 이문현 선수가 훈련하고 있다

“큰 부상이라 다시 운동하기 힘든 상태였어요. 하지만 쇼트트랙을 계속하고 싶다는 간절함과, 아프신 어머니를 보며 쇼트트랙으로 효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함께 몰려들어 재할에 몰두했습니다

에서 이효빈 선수의 뒤를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다. 그는 “제가 메달을 딴 것도 기쁘지만 선배이면서도 친한 형이랑 나란히 순위권에 올랐던 대회라 더 의미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문현 선수는 1500m 슈퍼파이널에서도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였던 이효빈 선수를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문현 선수는 바로 이 세계선수권대회를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손꼽았다. 처음 출전한 세계대회에서 통했던 그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순간판단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순간 판단력 덕분에 종합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평소에 뒤에서 선수를 제쳐나가는 순간판단력은 비교적 좋았지만 앞에서 리드하는 능력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 능력을 보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것 같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실력을 전국에 알린 그는 어느 대학으로 진학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쇼트트랙은 우리학교 외에도 단국대, 한국체대 등이 유명하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우리학교를 택했다. 이 선택에는 현재 이문현 선수를 가르치고 있는 이호석(스포츠지도학 2005, 現고양시청) 선수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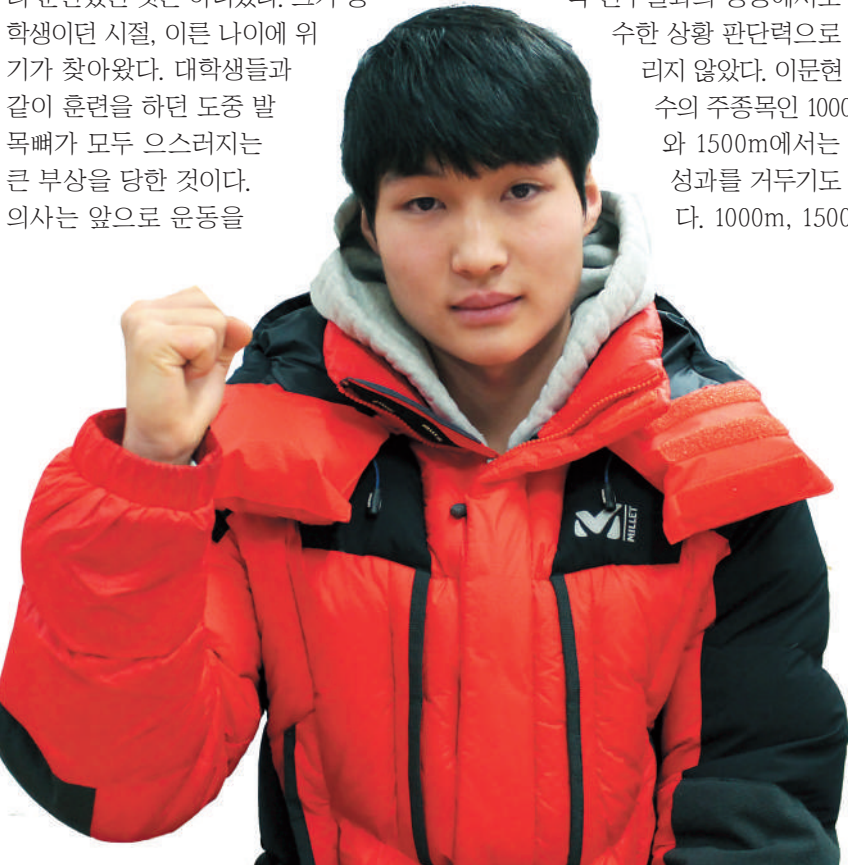
“이호석 선생님은 제 우상입니다. 저는

스케이트를 멋지게 타는 걸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멋진 폼으로 스케이트를 타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학교 출신 선배인 이호석 선수의 후배가 됐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이호석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게 신기하다’는 그는 “경희대 후배가 되어 뿌듯하고, 또 그래서 우리학교에 입학했을 때 감동적이었다”며 웃음을 지었다. 그가 우리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그는 새내기답게 거창한 꿈이 아니라 소박한 소망을 말한다.

“동계체육대회 때문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대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친구들과 놀러다니고 싶다.”

우리학교 쇼트트랙부는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그래서 이문현 선수는 ‘고양 어울림누리 체육관’에서 이호석 선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누구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지만 이제는 일상이 됐다. 이문현 선수는 2015년에 두 개의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 고등학교 소속으로는 마지막 대회인 전국동계체육대회, 나머지는 우리학교 소속으로 처음 나가는 ‘제29회 전국 남녀 중별종합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다. 새내기인 그가 우리학교에서 멋지게 금빛 질주를 펼쳐나가길 기대해 본다.



한 박사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